



## 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천릿길 순례 대장정 펼쳐진다

9월30일-10월18일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진행  
 총거리 423km...하루 평균 24km 걸으며 영호남 대표 사찰들 참배  
 108명 규모 8월15일까지 참가자 모집...백신 접종 완료해야 가능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했던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원력을 계승하고, 전법과 포교 나아가 상생의 사회를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만행결사가 울가를 다시 길 위에 선다. 한국불교의 불법승(佛法僧) 삼보를 상징하는 사찰들을 중심으로 천리 순례길의 대장정에 오른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추진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10월18일까지 19일간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진행한다. 순례는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를 시작으로 범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회향한다. 순례단은 9월30일 송광사에 집결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다음날 오전 8시 입재식을 봉행한 후 본격적인 순례에 들어간다.

이번 순례의 특징은 삼보사찰뿐 아니라 순례길에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여러 천년고찰을 만난다는 점이다. 순례단은 10월2일 약사여래 기도도량 사성암에서 1박을 하며 참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순례 4일째인 10월3일에는 조계종 19교구본사이자 통일신라 화엄십찰 중 하나인 화엄사를, 10월4일에는 아름다운 호수를 품은 신라고찰 천은사를 찾는다.

순례단은 해발 958m의 가파른 시암재를 넘어 10월6일 실상사를 방문한다. 실상사는 신라 구산선문 중 처음으로 문을 연 사찰로 현재는 불교 공동체운동과 생명평화운동의 중심지다. 10월7일 영남지방에 도착한 순례단은 계속해 발걸음을 옮겨 해인사로 향한다. 10월9일 해인사에서는 흥류동 계곡의 맑은 물을 빗 삼아 가야산 소리길을 걸으며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를 되새긴다.

10월16일 도착 예정인 표충사는 입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서산대사)가거대사의 진영을 모신 대한민국 대표 호국사찰이다. 다음날 표충사를 떠나 울산 속영지에서 1박을 더한 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로 향한다. 순례단은 10월18일 오전 11시 회향식을 갖고 내 안의 붓다를 만나는 여정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마무리한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7월14일 서울 동국대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순례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총거리는 423km다. 하루 평균 24km를 걸음에 걸음을 더해 5개 광역시 11개 시군의 천년고찰을 순례한다. 하루 일과는 지난해 자비순례와 동일하



다. 새벽 3시에 기상해 3시40분 예불을 모신 후 4시부터 7시까지 행선에 들어간다.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아침공양을 겸한 휴식시간을 갖고 오전 8시부터 다시 행선한다. 오후 4시 저녁예불을 모신 후 자율정진 및 개인정비의 시간을 갖고 저녁 9시 취침에 든다. 순례길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체험하고 불교중흥의 발원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순례단의 방문에 맞춰 화엄사는 개산대제 문화행사를, 해인사는 보살계 수계산림을, 표충사는 사명대사 추모대제를 봉행한다. 10월14

일 경남 부곡에서는 '전법과 포교'를 주제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중공사가 개최된다. 순례단 규모는 최대 108명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순례인 만큼 참가자들은 걸음걸이마다 화두와 염불, 주력 등 개인수행을 더한다. 묵언을 기본으로 행선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며 하루 3차례 발열체크, 도시락 식사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 엄격한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추진위는 지난해

자비순례 동참자를 대상으로 6월30일 천리순례 1차 모집을 마감했으며, 8월15일까지 일반을 대상으로 2차 참가자 모집을 진행한다. 현재 73명이 접수를 마쳤다. 개인과 순례단의 안전을 위해 입재 전까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순례에 동참할 수 있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 선발될 경우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참가비 전액을 지원한다. 호산 스님은 "지난해 사부대중의 많은 원력과 동참으로 자비순례를 원만히 회향하고, 베트남 화정실 건립, 동국대 의료원 구급차량 지원, 아름다운 동행

및 불교음악원 후원 등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을 놓는 불사에 힘을 더할 수 있었던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를 두 발로 느끼면서 불교중흥의 원력을 다지고, 전법과 포교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짐하는 길 위에서 펼쳐지는 '아단법석'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신앙결사인 삼보사찰을 잇는 천릿길 순례는 옛 조사스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삼보신앙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라며 "이번 순례가 한국불교 중흥의 새로운 바람이 되고, 한국불교의 우수성이 전세계에 홍보되며, 나아가 부처님 나라 인도에 불교가 다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장 겸 지객원명 스님은 "천리순례는 지난해 자비순례에 비해 거리는 100km 가량 줄었지만 해발 1079m의 시암재를 비롯해 오도재, 바래기재, 살피재, 큰재, 천원재 등 8개의 재를 넘어야 해 순례길의 어려움은 오히려 더하다"면서 참석자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상월선원 만행결사 추진위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앞서 9월초 예비순례를 갖는다. 예비순례는 천리순례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을 출발해 백담사를 왕복하는 2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 관련기사 3·23면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 “승가공동체 회복돼야 승려복지도 발전”

7월15일, 승려복지회 10년 대담  
 금곡, 보각 스님·공방환 위원 참석

승가공동체 전통이 회복돼야 승려복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보신문과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는 7월15일 서울 조계사에서 승려복지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전문가 대담을 개최했다.

2011년 '출가에서 노후까지 종합복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출범한 승려복지회의 1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이날 대담에서는 승려복지회의 성과를 살펴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제언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대담은 본지 이재형 편집국장의 사회로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승려복지회 회장 금곡 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보각 스님, 공방환 승려복지회 위원이 참여했다. 보각 스님은 36년 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학인들을 지도하는 등 한국불교 사회복지사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공방환 위원은 보건복지부에서 22년간 근무한 연금재정 관련 전문가로 2015년부터 승려복지회 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승려복지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승가공동체 회복'을 꼽았다. 공동체 정신이 회복된다면 승려복지, 특히 고령화

로 인한 주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보각 스님은 "승려복지라는 개념조차 불명확하던 시기에 출범한 승려복지회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이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스님이 없도록 좀 더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교구본사와의 협업, 재원마련 방안 등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승려복지회 회장 금곡 스님은 "승가본연의 역할인 수행과 '공동체'에 방점을 두고 승려복지제도를 실행한다면 재정에 대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대담 5면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 중앙신도회,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 개최

8월31일까지 정성어린 작품 접수  
 대상1명 100만원...참가자에 선물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운식)가 '불교성전' 보급을 위해 손글씨(필사)를 공모한다.

‘손과 마음으로 읽는 불교성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조계종 중단본 '불교성전' 읽기 생활화와 다양한 활용을 위한 참여의 장으로 마련됐다.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한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중앙신도회 홈페이지에서 필사지 양식을 다운받아 필사

한 원고를 8월31일까지 중앙신도회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필기구의 제한은 없으며 분량은 200자 원고 5매 이내다.

심사기준은 정확하고 개성이 돋보이는 손글씨로 진심을 담아 얼마나 정성껏 필사했는가다. 1차 실무자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상 1명에게 1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3명에게 30만원, 장려상 5명에게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중앙신도회는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에 참여한 전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주운식 회장은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불교성전'의 보급을 위해 중앙신도회는 법공양 챌린지와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번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를 통해 불교성전 읽기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각 가정에서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생활운동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손과 마음으로 읽는 불교성전 손글씨(필사) 공모전'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앙신도회 홈페이지(www.lba.or.kr) 또는 사무처(02-733-7277)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무진등 - 안병근 공주교대 전 총장 - 7면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 우리, 세상을 위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전법포교, 불교중흥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이  
 길 위의 아단법석으로 펼쳐집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모십니다.

순례일정 | 2021년 9월 30일 ~ 10월 18일

순례길 | 송광사 → 해인사 → 통도사

접수마감 | 2021년 8월 15일

문의 | 지객 원명스님 010-5416-0616

### 불자들의 세가지 보물 '삼보(三寶)'

-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16국사의 숨결을
- 범보종찰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진리의 깨우침을
-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내 안의 붓다를 만나는 여정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의 시작  
 사부대중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발원합니다

